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김정기 도의원,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서 “앞으로 내릴 비에 대해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할 수 있으며, 시·군 단위 및 읍·면·동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

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국제 납부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가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전북도와 도내 시·군이 주말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 달라”며, “앞으로도 비가 지속해서 내릴 전망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하이드리튬·리튬포어스 새안금 공장 착공식 17일 새안금 신단에서 열린 ㈜하이드리튬 및 ㈜리튬포어스 착공식에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전용 대표이사들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완벽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도의회 문건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호우 피해지역 찾아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7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민안전실의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병도 위원장(전주)은 재해 발생이 예상 가능한 지역들과 빈번한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운용하고 있는 지 정보, 빅데이터 자료를 꼼꼼히 파악하고 활용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의 실제화를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이 17일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지역을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물 중 농작물 침수가 가장 심각하며, 신속한 지원예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은 14개 시·군 호우 피해가 매년 같은 장소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우 피해 장소의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과 광범위한 민방위경보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관리 매뉴얼에 허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의 확장공사 등 하천 관련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며, 하천제방 유실에 관련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연 의원(전주)은 기존 재해위험지역들에 대해 개선되는 점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해위험지역과 관련된 자

료를 근거로 매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중대 재해처벌법의 강화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지만 홍보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컨설팅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 적용의 시각자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응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민안전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에 예정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지역을 긴급하게 찾았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제2회 추경 심의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우)가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51억원 늘어난 1조8,238억원 규모로 다이로움 익산시립상록원 원공 현업축사 매입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으며, 18일부터 24

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우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와 위로를 표한다”고 전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피해예방 및

복구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정민 의원은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 마이스(MICE) 산업 적극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고,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도 시관리공단의 공식 출범 이전부터 운영과 관련된 익산시의 잇단 말바꾸기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현황과 복구작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무주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지방의원 청렴·윤리강령 준수 위해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지방의회의원의 청렴과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무주군의회는 1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5명의 윤리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립을 위촉해 2년 동안 활동한다.

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해 의정에 자문하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청렴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여부 심의 등의 역할을 한다.

무주군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동 의원을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원 위촉으로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는 구조를 갖겠다.

이해양 의장은 “윤리심사위원 여러



분의 자문 의견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돼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무주군의회가 스스로 권위와 책임을 강화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편을 부타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내실있게 진행을”

도의회 교육위, 부교육감 정책질의 등 하반기 업무보고 시작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7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박주용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의 시작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이번 정책질의에서는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거 있게 다뤄졌던 현안이 주를 이뤘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스마트 칠판 보급과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 갔다.

김명지 위원장(전주)은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와 관련해 “연수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연수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

히 돌아간다.”며 “업체 선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가 전북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남원)은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전북 교육에 맞는 다양한 특례 발굴이 부족하다.”며 “학교,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 발굴을 통해 우리도 민의 특색있는 교육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연국 위원(비례대표)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교육 관련 사안을 언론보도 이후 보고 받는

등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소한 그릇 하나까지도 의회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진사업과 집행실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게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용태 위원(전안)은 “팀장급 직위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자리인데 1년 이상 직무대리로 운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 발령과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시니어를 위한 타임캡슐 음악다방

2023. 7. 28 (금) 7:30pm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